

수행의 길잡이 선가귀감



<80> 따로 입제종의 종지를 밝히다

앞에서 선종의 다섯 종파에 대한 가
종을 말했는데 여기서는 따로 입제종
종지만을 밝힌다. 그 까닭은 우리나라
에서는 입제종을 선종의 정통으로 여기
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서산 스님도 입제
종의 간화선을 주장하며 평생 그 길을
밧아왔고, 또 후학들을 지도하기 위하
여 간화선을 중심으로 <선가귀감>을
저술하고 있기 때문이다.

입제종의 종지를 밝히는 데에 있어
먼저 '3구(三句)' '3현(三玄)' '3요(三
要)'의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선가귀감> 78-2장에서는 이것과 함
께 입제종의 종지를 이해할 수 있는 '4
료간(四料簡)' '4빈주(四賓主)' '4조용
(四照用)' '4대식(四大式)' '4할(四喝)
' '8방(八棒)'을 간략하게 말하고 있다.

大凡 一句中具三玄 一玄中具三要 一
句無文線印 三玄三要 有文線印. 權實玄
照用要.

무릇 '일구(一句)' 가운데 3현이 갖추
어져 있고 '일현(一玄)' 가운데 '3요'가
갖추어져 있다. 일구에는 말이나 글로
언급할 수 있는 여지가 없고 삼현과 삼
요에는 말이나 글로 언급할 수 있는 여
지가 있다. 방편과 실상으로 드러나는
것이 '현(玄)'이요 그 진리를 통찰하는
것이 '요(要)'를 현실에 바로 쓰는 것
이 '요(要)'이다.

'3구'에서 첫째 구는 '사람의 몸을 잃
게 하고 목숨을 잃게 하는 것'이고, 둘
째 구는 '인을 열기도 전에 잠탈된 것'
이며, 셋째 구는 '몸을 담은 삼태기와
마당을 쓰는 빗자루'이다.

'3현'에서 첫째 '체중현(體中玄)'은

'과거, 현재, 미래가 한 생각에 다 들어
있는 것들'이니 본바탕에서 깊은 도리
를 나타내는 것이다. 둘째 '구중현(句中
玄)'은 '말길이나 뜻길이 다 끊어진 말
한마디와 같은 것들'이니, 이 한마디 가
운데서 깊은 도리를 나타내는 것이다.
셋째 '현중현(玄中玄)'은 말없이 침묵
속에 함침 있게 되는 '양구(良久)' 방망
이집히는 '방(棒)', 고함치는 '할(喝)'과
같은 것들이니 깊은 도리에서 깊은 도
리를 드러내는 것이다.

'3요'에서 '첫째 요지'는 '진리를 통
찰하는 힘(照)'이 곧 오묘한 바탕으로
서 '대기(大機)'이고, '둘째 요지'는 '진

서산 스님 입제종의 간화선 주장 '선가귀감' 저술 '3구' '3현' '3요'의 내용 이해하는 것이 중요

리를 통찰하는 힘'이 곧 현실에 바로 오
롯하게 쓰이는 대용(大用)이며, '셋째
요지'는 진리를 통찰하는 힘 '과' 그 힘
이 현실에서 바로 오롯하게 쓰이는 것'
 곧 '대기' '대용'이 동시에 일어난다는
것이다.

공부를 점검 받고자 하는 상대방의
근기를 네 가지 부류로 헤아려서 후학
들을 맞이하는 '4료간(四料簡)'에서, 사
람은 죽이지만 경계는 죽이지 않는 '탈
인불탈경(奪人不奪境)'은 낮은 근기를
상대하는 것이고, 경계를 죽이나 사람
은 죽이지 않는 '탈경불탈인(奪境不奪
人)'은 중간 근기를 상대하는 것이며,
사람과 경계를 다 죽이는 '인경구탈(人
境俱奪)'은 높은 근기를 상대하는 것이
고, 사람과 경계를 죽이지 않고 다 살리

는 '인경구탈(人境俱不奪)'은 뛰어난
대장부를 상대하는 것이다.

선지식을 주인에 비유하고 학인을 손
님에 비유하여 그들의 수행 정도에 따라
문답형식으로 나타나는 양상을 표현한
'4빈주(四賓主)'에서, 손님 중의 손님
'빈중빈(賓中賓)'은 학인이 속설 구멍이
없으므로 학인의 물음에 있고 선지식의
대답이 있게 되는 것이다. 손님 중의 주
인 '빈중주(賓中主)'는 학인에게 속설 구
멍이 있으므로 학인이 주인 노릇도 하고
선지식과 오고가는 법도 있게 되는 것이
다. 주인 중의 손님 '주중빈(主中賓)'은
선지식에게 속설 구멍이 없으므로 학인
의 물음만 있고 선지식의 적절한 답변이
없는 것이다. 주인 중의 주인 '주중주(主
中主)'는 선지식에게 속설 구멍이 있으
므로 아무 걸림이 없어 뛰어난 주인 노릇
을 하고 있는 것이다.

종사가 학인을 다루는 방편인 '4조용
(四照用)'에서 먼저 학인의 역량을 알아
본 뒤 법을 쓰는 '선조후용(先照後用)'
은 어떤 사람이 있을 뿐이고, 먼저 법을
쓴 뒤 학인의 역량을 비추어 알아보는

'선용후조(先用後照)'는 어떤 법이 있
을 뿐이다. 학인의 역량을 알아보는 동
시에 법을 함께 쓰는 '조용동시(照用同
時)'는 법을 가는 농부의 소를 빼앗고
굴주린 사람의 밥을 빼앗듯이 학인의
사정을 털끝만치도 용납하지 않고 조사
의 법령으로 학인의 생명(身命)을 단숨
에 뒤바꾸는 것이다. 학인의 역량을 알
아보는 것과 법을 쓰는 것이 동시에 있
지 않는 '조용부동시(照用不同時)'는
학인의 질문에 종사의 대답이 있게 되
는 것이니, 학인의 근기에 따라 학인을
다루는 방편이다.

학인에게 깨달음을 얻게 하는 네 가
지 격식인 '4대식(四大式)'에서, '올바
른 이익을 주어 깨달음을 얻게 하는 격
식'은 '달마가 소림굴에서 벽을 마주하

고 앉는 것'과 같은 것들이고, '평상시
도리로 깨달음을 얻게 하는 격식'은
'화산 스님이 북을 칠 줄 안다는 것'과
같은 것들이며, '본분으로 깨달음을 얻
게 하는 격식'은 '산승은 알지 못한다'
는 것과 같은 것들이고, '방편으로 깨달
음을 얻게 하는 격식'은 달마가 '알지
못한다'고 말한 것과 같은 것들이다.

'할'의 성격을 네 가지 쓰임새로 구분
한 '4할(四喝)'에서, '금강왕보검의 할'
은 한칼에 온갖 알음알이를 끊는 '할'
이고, '웅크린 사자가 포효하는 할'은
모든 마귀의 머리가 터지는 '할'이며,
'장대로 더듬고 풀 더미 그림자로 기척
을 살피는 할'은 스승의 공부들이 이어 받
을 수 있는지 없는지 학인의 역량을 살
피는 '할'이고, '깨달음에 관한 모든 일
이 한꺼번에 다 해결되는 할'은 위에서
말한 '3현'과 '4빈주(四賓主)'를 다 갖
춘 '할'이다.

종사들의 방망이질에도 여덟 가지가
있는데 그 '8방(八棒)'의 내용은, 조사
의 영을 내리서 깊은 이치로 돌아가게
하는 방망이질, 헛된 생각을 다치는 대
로 얹어 올바른 이치를 따르게 하는 방
망이질, 깊은 이치라도 내치고 올바른
이치라도 깎아내리는 방망이질, 모질게
질책하는 방망이질 이 네 가지는 모두
발을 주는 방망이질이니 '발방(罰棒)'
이다. 종지에 어긋남이 없으므로 상으
로 때려주는 방망이질은 '상방(賞棒)'
이고, 헛된 것과 참된 것이 뒤섞여 있으
니 이것을 가려주는 방망이질은 '변방
(辨棒)'이며, 눈 먼 도리깨처럼 함부로
휘두르는 방망이질은 사리에 어두워서
눈이 먼 '할방(瞎棒)'이며, 범부이든 성
인이든 모든 지견을 몽땅 쏟아내는 방
망이질이야말로 올바른 이치를 드러내
는 '정방(正棒)'이다.

이와 같은 법들은 특별한 입제종의
가공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위로는 모
든 부처님으로부터 아래로는 모든 중생
에 이르기까지 다 본분에 맞아떨어지는
일들이다. 따라서 여기서 말해 놓은 법
을 벗어나게 되면 모두 거짓말이 된다.

■ 원순 스님(송광사 인월암)

권경희의 상담심리학과 불교 <22>

정신분석과 불교-2

정신분석과 불교는 출발의 전제가 다르
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다. 정신분석
의 대상은 환자다. 환자란 심리적인 문제
가 생겨 일상적인 삶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불교의 수행자는 이와
반대로 일상적인 삶에 만족하지 않고 더
높은 경지에 도달하겠다는 자발적인 의지
를 발현한 사람이다. 이 둘 가운데에 보통
사람들, 일상인이 놓여 있다.

이들 자아초월심리학에서는 자아가 제
대로 형성되지 않은 전개인(pre-personal)

문이다. 안내는 받되, 대상이 아니라 스스
로 자신의 길을 가는 주체자다. 그 하나의
방법으로서 변화무쌍한 자신의 심리세계
를 어슬렁 들여다보는 것이다. 스승의 또
하나의 역할은 제자들이 자기 길을 제대
로 가고 있는지 검증해 주는 것이다.

정신분석에서도 분석가의 해석에 따라
환자가 '통찰'을 하는 과정이 있다. 여기
서 피분석자인 환자가 비로소 주체자의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러나 그것 역시 요리
사인 분석가가 만들어 준 음식을 환자가

정신분석에는 치료자가 주도가 되어 환자 분석 불교에서 제자는 스스로 자신의 길 가는 주체자

단계, 자아가 형성된 인간으로서의 기능
을 제대로 발휘하는 개인(personal) 단계. 그
리고 자아를 초월하여 조금 더 지고한 삶
을 추구하는 초개인(trans-personal) 단계
로 나누어 놓았다. 즉, 정신분석의 대상인
'환자'는 전개인 단계에 놓인 사람이며,
개인 단계인 수행자는 초개인 단계로 올
라서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출발점이 다르므로 행위의 주체
 또한 다르다. 정신분석에는 '치료자와 환
자'라는 관계가 설정돼 있다. 치료자가 주
도가 되어 환자를 분석한다. 환자는 자기
의 심리 속에 있는 재료를 자유연상, 꿈, 전
이, 저항 등을 통해 내어놓을 뿐이다. 환
자는 '분석의 대상'으로서 분석을 '당한다'.

불교에도 '스승과 제자'라는 관계가 있
다. 불교의 스승은 자신이 먼저 가 본 목표
지점, 진리의 세계에 가는 길을 알려 주는
안내자다. 그 길을 가고 안 가고는 제자의

반아머어서 소화시키는 역할일 뿐이다.

이후 인간중심상담에서 내담자가 중심
적 역할을 하는 것이 강조되고, 정신분석에
서도 분석가는 다만 피분석자의 거울 역할
을 할 뿐이라고도 하지만, 분석가 중심의
관계 설정 자체가 바뀌는 것은 아니다.

정신분석에는 '교육 분석'이란 개념이
있다. 교육 분석의 대상은 정신분석가가
되기 위해 훈련을 받는 수련생이다. 즉 전
개인 단계가 아니라 개인 단계에 있는 사
람이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환자와 치료
자' 관계의 분석과는 다르다.

이밖에도 '자기 분석'이란 개념도 있다.
이는 스스로를 분석하는 것이다. 정신분석
학의 창시자인 프로이트는 많은 환자를
분석하는 한편 스스로를 분석함으로써 정
신분석 이론을 구축하였다. 이 자기 분석
이 불교의 수행과 가장 근접하기는 하나,
앞에서 살펴듯이 그 범위와 지향점이 불



그림 : 문병성

한입에 소옥~ 불교 상식

여래장(如來藏)

아무리 무지한 중생이더라도 모든 중생은 자신이 가
지고 있는 번뇌 속에 부처님을 품고 있다. 즉 인간은
본래 여래가 될 요인(여래의 태아, 즉 불성(佛性)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가능성을 말한다. 이것이 불교
에서 말하는 여래장(如來藏)이다. 여래장은 산스크

리트어 tathāgata-garbha를 번역한 말이다.

여래장은 모든 중생의 번뇌 가운데 덮여 있는 본
래 맑은 자성정정한 여래법신을 뜻한다. 이 여래장
은 번뇌 중에 있어도 번뇌에 더러워짐이 없고, 본래
부터 절대정정해 영원히 변함이 없는 깨달음의 본성
이다. 더러움과 맑음 등 모든 현상이 여래장에서 연
기했다고 살하기에 여래장연기라고 한다.

여래장 사상을 최초로 논한 <여래장경>은 '일체
중생은 여래장'이라고 선언하며, 번뇌에 둘러싸인
중생 중에 여래지(如來智)·여래안(如來眼)을 갖춘
여래가 단좌(端坐)하고 있다고 말한다. <승만경> 법

신장에는 '여래법신의 번뇌장을 여의지 않는 것을
여래장이라고 한다'고 했다.

이러한 여래장 사상 형성의 배경에는 원시불교 이
래의 자성정정심(自性清淨心) 및 진리와 사물을 동
시에 의미하는 법(法)의 개념, 그리고 <화엄경(華嚴
經)>의 미진함전(微塵含刹·하나의 작은 티끌에 삼천
대천세계가 포함되어 있음의 비유, <법화경(法華
經)>의 일승(一乘·초기 대승불교에서 비판되었던 성
문·목각도 보살과 함께 성불할 수 있다는 점에서
모두가 하나라는 설) 사상 등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김지연 기자

“천년전 마음으로 불사에 동참합니다”

석불상 · 석탑 · 석등 · 동물상 · 인물상 · 목불조각 · 수미단 · 조형물조각 · 목불조형

옛 신라인은 수 많은 불교 문화유산을 남겼습니다. 아직도 이 땅 곳곳에 우리 가슴을 따
뜻하게 하는 신라인의 불심과 손길을 접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석굴암은 불교신앙을
대표하는 부처님 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저희 현대불교조각예술원은 이러한 신라인의 마음으로 불사의 소임을 다하려합니다. 제
방의 대덕 큰스님들의 많은 가르침을 기다리겠습니다.

문화재청 등록 조각기능보유자



석재조각의 대가 현대불교조각예술원

전화 031)531-5349 / 전송 031)533-6289 / 휴대폰 010-8887-1189

보은사 울산포교원 통명정사 교육원 개원안내

우리나라에 불교가 전래된지 1600여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부처님의 인연을 더욱 키우고져 생활속에서 함께할 도심속에 포교원을 개원하여 중생의 복밭이 되며
생활속에 지친 불자들의 휴식과 마음의 안정을 약속할 도량이기를 발원하옵고

평소에 불교가 어렵다고 생각하신적은 없으셨습니까?

보은사 울산 포교원 통명정사로 오십시오!

쉽고, 재미있게 자비로운 부처님결로 가는 길이 열려있습니다.

불교의식, 불교기초교리, 생활요가

개원일 2007년 8월 11일(토) 오전 10시

요일	강의내용	시간	대상	비고	강사
월	불교 기본 의식	오후 2시~5시	일반,스님	도량석,중성,예불, 불공3개월	석원범
화	기초예절,기초교리 및 사찰 건축물의 이해	오후 2시~5시	일반	3개월	석혜명
수	"	오후 2시~5시	일반	3개월	석혜명
목	생활요가	오후 2시~5시	일반	3개월	석동산
금	생활요가	오후 2시~5시	일반	3개월	석동산
토	불교제반의식	오후 2시~5시	일반,스님	재의식,임종염불, 방생,일반법회6개월	석원범

◆주 소 : 울산광역시 남구 무거 2동 618-14 (울산대학교 정문 맞은편)

◆전 화 : 052)247-8883 / 052)238-8819 / 휴대폰 : 010-4554-1412